

투싼, 6년만에 완전변경... 디자인·AI·전동화 등 전 영역 혁신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공개

차체 확대... '아트 오브 스틸' 적용
헤드룸 등 실내 거주성 대폭 개선
동급 최초 '기억 후진 보조' 도입

"다양한 일상을 함께하고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다." (윤호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윤호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이 현대차의 5세대 '디 올 뉴 투싼'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투싼은 다양한 오프로드의 일상을 함께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모델로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게 재설계됐으며 차체 크기 확장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첨단 인포테인먼트까지 전 분야에서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 올 뉴 투싼을 최초로 공개했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강인한 외관을 구현했으며, 여유로운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확보했다.

신형 투싼은 이전 모델 대비 여유로워



현대차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디 올 뉴 투싼'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진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강화했다. 전장(60mm), 휠베이스(30mm), 전폭(40mm)이 늘어나며 체감을 넘어서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2열 레그룸(1064mm)과 헤드룸(1031mm)을 크게 늘려 동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라기지 적재 공간도 추가 확대했다. 2열 도어 개방 각도 역시 기존 73도에서 83도로 넓혀 영유아 카시트 설치나 큰 짐을 싣고 내리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차체 확대와 함께 패밀리카로서 실내 거주성을 강화한 것이다.

주행 감성 면에서는 전문 서스펜션과 차체가 연결되는 부위의 강성 증대와 후륜 댐퍼 보강 스티어링 적용을 통해 노면 진동을 대폭 개선, 한층 안락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했다고 고 회사는 설명했다. 동력계의 핵심은 단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파워트레인

은 1.6터보 가솔린과 1.6터보 하이브리드로 구성된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93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한다. 기존보다 출력이 13마력 높아졌으며 8단 자동변속기가 조화됐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최고출력 245마력, 복합연비 17.4km/l의 뛰어난 효율성을 확보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감속 구간을 예측하는 '관성 주행 안내'와 정차 중 전기차처럼 공조-인포테인먼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도 적용했다.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충돌로 메인 전원이 차단돼도 도어 잠금 해제를 지원하는 '도어 언락 전원 이중화'를 처음 적용했고,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2를 전 트림에 기본화했

다. 차량의 후진 궤적을 기억해 자동으로 조향하는 '기억 후진 보조'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디지털 경험도 신형 투싼의 핵심이다. 현대차 SUV 가운데 처음으로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하고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와 '플레오스 앱마켓'을 제공한다. 차량 제어를 넘어 지식 검색과 여행 일정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에 걸맞게 디자인·공간·전동화·디지털 기술 전 영역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다.

신형 투싼은 내달 가격을 공개하고 국내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두산로보틱스

권영민 신임 CEO 선임

두산밥캣 CSO·두산모트 대표 등 역임

두산로보틱스가 전략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춘 권영민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사진)로 선임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권영민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사장은 1990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9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주)두산 전략기획본부에 입사한 이후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인프라코어(현 HD건설기계)에서 중국 영업·마케팅과 글로벌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산밥캣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지내며 회사의 사업 전략을 이끌었다.

2021년부터는 두산밥캣자회사인 두산모트를 대표이사를 맡아 약 5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과 경영 전반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중장기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공랭식 터보 칠러 상용화... AI DC 시장 정조준

기존제품보다 냉각효율 20% 이상 높여
이재성 사장 "AI DC 시장 주도권 확고히"

LG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냉각 효율을 20% 이상 높인 터보 칠러를 앞세워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에 맞춘 '공랭식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칠러는 차가운 물을 만들어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대형 냉각 설비다.

신제품에는 전자기력으로 회전축을 공중에 띄우는 '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 기술을 적용했다. 회전축과 베어링이 맞닿지 않아 기계적 마찰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아 오일 순환 펌프와 배관도 필요 없다. 열교환기 내부에 기름막이 생겨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도 막는다.

신제품의 부분 부하 효율(NPLV)은 데이터센터에 주로 쓰이는 인버터 스크류 칠러보다 20% 이상 높다. NPLV는 칠러가 최대 용량보다 낮은 출력으로 운전할 때의 효율을 종합한 지표다.

외부 기온이 낮은 간절기와 겨울철에는 압축기를 가동하지 않고 냉매를 자연 순환시키는 '냉매 프리쿨링' 기술을 활용한다. 전력 소비가 큰 압축기의 가동 시간을 줄여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줄이는 '하이 드로닉 모듈러' 기술도 적용했다. 펌프와 배관 등 필수 설비를 공장에서 완제품 형

태로 제작해 현장에서는 칠러 본체와 컨테이너형 모듈만 연결하면 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을 앞당기고 증설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냉각 설비의 전력 효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냉각을 포함한 기반 설비는 이 기간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엔비디아의 DGX GB200은 하나의 랙에 그래픽처리장치(GPU) 72개를 탑재하고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했다. 한

정된 공간에 고성능 GPU가 밀집해 발열량이 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냉각 설비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수요를 겨냥해 LG전자는 칠러와 액체 냉각 제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칠러 사업의 연간 매출 1조원 달성 목표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 효율부터 모듈러 기반의 신속한 현장 구축 역량까지 AI 데이터센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를 집약한 솔루션"이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구자은 회장 "AI 시대 빠른 변화, 누구보다 먼저 즐겨야"

(LS그룹)

LS 퓨처데이

실제 사업성과·고객가치 연결 강조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빠른 변화를 누구보다 앞서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 사업 성과와 고객 가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AI 탐색을 넘어 사업 성과 창출(AI into Business Impact)'을 주제로 열린 제5회 'LS 퓨처데이'에서 "어제의 공상과학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이면 평범한 기술이 되는 시대"라며 "변화의 속도를 두

려워하지 말고 그 속도를 누구보다 먼저 즐기는 LS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S 퓨처데이는 구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신사업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업무 혁신 성과를 그룹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혁신 역량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 공유 프로그램에서는 'AI 기반

케이블 제조 마이스터'와 'AI 데이터센터용 고신뢰 전력 보호 플랫폼' 등 신사업·기술·혁신 분야 19개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AI 코딩을 활용해 제품·솔루션 아이디어를 핵심 기능을 갖춘 시제품(MVP)으로 구현하고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담은 영상도 AI로 제작했다.

우수 프로젝트를 발표한 임직원은 'LS 퓨처리스트'로 선발됐다. 이들은 내년 중국 산업도시를 방문해 현지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최신 기술과 사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후에 열린 'LS 퓨처포럼'에서는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18일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제5회 LS 퓨처데이'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LS그룹

의됐다. 윤송이 PVP 대표와 윤성로 서울대 교수, 김장현 BCG 파트너,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등이 AI 시대의 인재 육성과 산업 현장 적용 전략, 재무 업무 혁신, 피지컬 AI 시대의 제조 환경 변화 등을 다뤘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에이머스 해커톤' 성료

LG가 청년 인공지능(AI) 인재를 대상으로 실전형 해커톤을 열고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AI 교육을 넘어 실제 기업 데이터와 과제를 활용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면서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LG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청년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누적 2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9기에는 역대 최대인 3393명이 참가했다. 온라인 교육과 해커톤 예선을 거쳐 3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6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LG는 결선 참가자 전원에게 총 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번 해커톤 특징은 AI 기술 자체보다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스포츠가 제시한 '투수 제구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참가자들은 경기 상황과 중요도, 최근 경기 흐름, 투수별 특성 등을 반영해 다음 투구의 제구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LG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LG AI연구원, LG전자, LG유플러스, LG CNS 등 4개 계열사는 20일 채용 박람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다. AI 인재풀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취업 컨설팅과 모의 AI 면접 등도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